

# 오바마 “경제난 극복 최우선”

## 대통령 당선후 첫 기자회견…“경기부양책 서둘러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7일(현지시간) 취임 즉시 경제문제와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차기정부 운영방안을 밝혔다.

그는 또 차기 행정부의 각료 인선을 최대한 신중을 기하되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몇 주안에 내각자 명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시카고에서 대통령 당선으로 처음으로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10월에 24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들어 120만명이 실직했고 현재 1천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생애 최대의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어 “대통령 취임 즉시 신용경색 위기를 해소하고 어려운 가정을 돕고 경제성장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위기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산층 구제책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재

적인 경기부양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경기부양책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의회가 경기부양책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조만간 경기부양책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위기의 충격이 우리 경제의 다른 부분으로까지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기는 점점 더 국제화되고 있기 때문

에 국제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 자동차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거론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정권인수팀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바마 당선인과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해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8일(현지시간) 시카고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北 개성공단 ‘극단 조치’ 취할까 대남 압박용 ‘무력 시위’ 폐쇄 단행 가능성 낮아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한 대남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듯한 조짐을 보이며 따라 향후 공단 폐쇄 등의 조치가 잇따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현장조사 명목으로 군부 인사들을 공단에 보내 사실상의 ‘무력시위’를 했다. 자신들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배라 살포가 계속되는데 대한 대응이 자 상황에 따라 실제로 개성공단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인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에 따르면 북측 조사단 단장인 김영철 중장은 “나는 결권권자가 아니다.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거나 “단계 사업의 진전이 느려 2단계 사업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에 미뤄 북측은 ‘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공단 입주 기업들의 불안 심리를 조성, 대남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일주일 가운데 남측 기술자와 기업주들이 남측으로 가장 많이 돌아가는 목요일을 현장조사일로 꼽은 것을 두고도 남측에 ‘위협 메시지’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심리전’

의 근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공단 폐쇄를 단행할 가능성은 현 단계에서는 높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오바마 시대’ 개막을 맞는 시점에서 개방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북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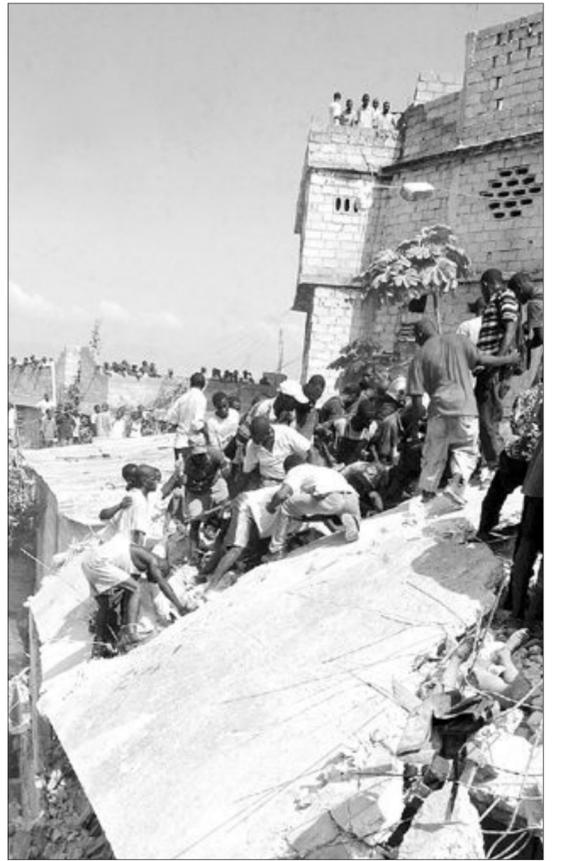
또 현재도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물론 순수 중국 기업마저 대북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까지 폐쇄할 경우, 북한의 대외신뢰도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그 배경으로 꼽힌다.

북한이 곧바로 행동에 나서는 대신 ‘무력시위’를 한 것도 개성공단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업임을 반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전면 철수는 아니더라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남측 인원 철수나 출입 제한 등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일단 ‘일회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성공단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공단내 입주기업들과 공장장을 짓고 있는 50여개 업체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티 학교 붕괴 90여명 사망 지난 7일(현지시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의 페티옹-빌에서 수업 도중 교사(校舍) 붕괴 사고가 발생, 사망자만 90명을 넘어서는 등 희생자 수가 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사고 직후 구조대와 시민들이 희생자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北 외무부 대표-오바마 당선인측 우호적 분위기 속 첫 접촉

오바마 당선인측과 북한 정부 대표단과의 첫 만남이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호적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북핵 검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장과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는 이날 오후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최 한반도 전문가 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특히 차기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할 것으로 알려진 자누지 팀장과의 국장이 첫 접촉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관심이 쏠렸다.

리 국장이 미 대선이 끝난 직후 미국을 방문한 것은 북한이 오바

마 정권의 탄생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북핵문제를 북한과 미국 양자 간 구도로 만들기 위한 탐색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분석과 오바마 측의 대북 정책에 관한 입찰을 시사할 만한 대화가 오갔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이날 정오부터 4시간여 동안 진행된 NCAFP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져 자누지는 회의의 구체적 발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토론회 직후 주최 측은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토론 내용과 분위기를 포괄적으로 가늠해 해왔다.

자고리아 교수는 회견에서 “오늘 회의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고 평했다. 연합뉴스

## 한미일 ‘안보 토의’ 6년만에- 정례화 합의

한국과 미국, 일본 국방관계자들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6년 만에 ‘안보토의’ 모임을 했으며, 앞으로 이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 국방부가 8일 전했다. 국방부는 “이번 모임 대표들은 지난 2002년 5월 중단된 이후 재개된 이번 토의가 아주 유익했으며, 계속해서 모임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3국 대표들은 모임에서 자국의 국방정책을 설명한 뒤 지역안보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재난구조와 재건, 국제평화유지 활동 등의 분야에서도 함께 공헌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안보토의는 송봉헌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데이비드 세드니 미국 국방부 야대담당 부차관보, 마쓰모토 류타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과 차장이 각각의 대표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 “김정일 매제, 장성택이 北 통치”

### 훗 더 타임스지 보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외병실 속에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8일 서울 발로 보도했다. 한국 정부 관리들과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비밀 경찰을 지휘하는 62세의 장성택이 핵심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시사하는 정보를 수집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한국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의식이 없고, 아마도 걸을 수도 있지만 8월

후 여전히 약한 상태라고 믿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정부는 뚜렷한 불만의 징후 없이 일단 정장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더 타임스에서 “현재 장성택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지휘하고 있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이 괜찮았을 때조차 다른 중요한 인물들이 그와 협의했고, 김정일이 사망한다 해도 장성택은 김정일의 정치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공매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주)옥션코리아**  
 법무사 권속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친철상담**  
 ☎ 062)222-8446  
 H.010-3666-8446

▶근린시설					▶주택					▶아파트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평형	층	면적(㎡)	감정가	최저가
정양동	154/418	14억3000만	7억9000만	상가,오피스텔	백운동	48/36	9740만	6450만	서영애중인근	신정동	호반5차	15층	34	1억8000만	1억1000만
우산동	727/431	67억2000만	47억	지정차량등록면허센터	오사동	43/50	1억3000만	7500만	충무중교인근	건일동	청담1호	9층	34	1억1000만	7700만
우산동	188/193	10억8000만	5억9000만	노원역중	중동동	41/22	7200만	2800만	태이공원	건일동	청담2호	4층	28	1억8000만	7350만
운안동	146/400	12억7000만	7억1000만	상가,사무실	신봉동	146/31	7100만	7100만	신촌미용내	봉선동	리안리1호	7층	22	5500만	3850만
용봉동	137/223	8억1000만	3억5000만	사당사무실	용동	150/20	7800만	7800만	희봉마을내	신남동	그린	18층	24	8700만	4690만
안산동	362/893	41억4000만	26억5000만	금융,의료시설	소촌동	58/55	8800만	3800만	송정중교인근	마곡동	삼익	8층	32	8900만	5600만
문안동	1138/1959	111억1000만	62억2000만	병원	왕곡동	176/87	4900만	2700만	구산마을내	문흥동	중흥	7층	32	9000만	6300만
누문동	40/34	4억9000만	2억4000만	수원초교,안-한대변	금곡동	116/56	1억4000만	8200만	메리시정인근	쌍정동	리안리2호	7층	32	8800만	6880만
					광명동	246/39	8300만	8300만	상산마을내	금호동	해방대역	2층	31	9100만	6370만
					고서동	186/81	1억5000만	7400만	산악마을내	두암동	그린	18층	33	1억1000만	7700만
					장성동	101/34	1억	7000만	장성사우문근						
					계림동	55/22	8200만	4600만	사계백제정지역						
▶근린상가					▶오피스텔/다세대					▶토지					
소재지	평형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필도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정양동	83	7억5000만	4억2000만	근세메아스리유통기	차량동	11.8	8000만	4480만	구영드림빌 4층	하동	대지	625	7억2000만	5억	금남중교인근
정양동	7A	5000만	4400만	한식축산물가	차량동	47.4	3억3000만	1억9480만	로진드림파크 2층	용봉동	대지	203	7억3000만	3억3000만	한대남중교인근
정양동	41	2억3000만	1억4000만	한일외식/식품	철산동	13.7	8800만	4820만	동강 8층	동림동	대지	248	3억6000만	2억5000만	삼봉남중교인근
우산동	39	4억3000만	1억	북부스마트/가	차량동	8.8	5500만	3850만	수림 7층	번덕동	전	558	1억1000만	8100만	마곡마을내
철산동	32	5억1000만	1억8000만	아름다운코리안/기	수기동	8.1	4300만	2400만	제일 13층	마곡동	전	591	3억7000만	2억6000만	쌍둥이중교인근
철산동	200	20억3000만	9억8000만	솔리텍스캐/유통/기	유림동	44.9	2억	1억2400만	우등스마트빌리 2층	금곡동	관수현	2600	9억1000만	8억4000만	금천사우문근
송정동	2	1억	4400만	갈라지/유통/기	산남동	25.8	1억4000만	8000만	그린빌리 4층	광명동	담	822	2700만	1500만	장동마을내
▶숙박시설(모텔)/원룸					▶농가편의시설					▶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정양동	65/299	4억5000만	2억5000만	5층건물	곡성동	439/222	9440만	4230만	둔산 30터드림빌	용봉	1565/688	23억2200만	16억2520만	통곡2444년도리	
누문동	134/400	14억4000만	5억1000만	6층건물	곡성동	382/226	1억5000만	1억5000만	주목사상대역사도리	운수동	634/185	11억5000만	8억5000만	이화유안근대리	
금남동	36/49	1억1000만	5100만	가업은행연근	문경동	738/410	29억6500만	1억1000만	속사도리	노안동	607/443	5억1400만	2억8800만	불어안근대리	
송정동	63/299	5억9000만	3억2000만	7층건물	무암동	720/233	1억1000만	7720만	우시주목사도리	삼계동	1049/213	2억2710만	1억8050만	상계공역사도리	
남양동	832/626	15억4000만	5억5000만	4층건물						둔덕	1248/641	7억770만	4억8540만	불어안근대리	
철산동	54/101	2억5000만	1억7000만	금융초교인근											

## 태양열 보일러로 난방 및 온수 비용을 해결하세요~!!

해만 뜨면 무한으로 생산되는 태양열보일러로 연료비 걱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면 태양열 온수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주택 • 공장 • 호텔 • 목욕탕 • 유치원 • 교회 • 복지시설 등...
- 미용실 • 식당 • 골프장 • 헬스클럽 등...

태양열난방+온수기

기름보일러 및 심야보일러 사용요금 많이 나오는 업소 및 용량이 부족한 곳에 더욱더 **확실한 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순간 온수기 가격으로 태양열을 이용해 보십시오.  
 ※ 순간온수기보다 5배 이상 긴 수명으로...  
 ※ 순간온수기보다 5배 이상 큰 용량의 태양열 온수기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난방 및 온수시공 전문업체

※ 용량이 많은 곳은 태양열 설치 시 절감된 연료비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36개월 할부)

Daejin solar

(주)대진솔라

제품문의 및 주문

1600-7480

익산시 신흥동 740-21 (1공단내)

063)838-2231